

10월 SAT 점수 발표, 이후 준비는?

올해 10월 SAT 점수가 발표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입 준비에 나서야 한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가 이후 대입 준비에 대해 안내했다.

■ 12학년

12학년들은 10월 SAT 점수가 이전에 비해 올랐다면 이 점수와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얼리 디시전과 얼리 액션 학교 리스트를 확정해야 한다. 이미 학교의 성화에 못이겨 얼리 디시전/액션 학교를 제출한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미세한 지원 대학 리스트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여전히 합격 가능성 10%에 못매다는 학생들이 있다. 명문대학에 진학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다. 그러나 얼리 디시전/액션 카드는 매우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학업 성적과 비학업 기록을 함께 고려하고, 학비 부담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학 리스트를 정해야 한다.

만일 SAT 점수가 1100점대 이하로 나왔을 경우에는 얼리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1100점 이하에 얼리를 지원할 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몇십 점이 올랐다고 지원 대학을 갑자기 급상향 조정해서는 안 된다. SAT는 미국 대학 입학 사정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SAT 점수만 갖고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즉 당락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이 SAT 점수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제부터 에세이와 원서 작성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

11월에도 SAT 시험을 볼 수 있다. 11월 점수도 얼리에 들어간다. 부족하다고 생각되

면 한번 더 볼 수 있다. 레귤러를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12월에 시험을 한번 더 볼 수 있다. 그러나 "SAT에 목매달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찾아서 철저히 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10-11학년

10-11학년들 가운데 10월 SAT 시험을 본 학생들이 있다. 대부분 점수가 기대이하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SAT-ACT 시험은 준비했을 때, 즉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평균점수 이상에 도달했을 때 보는 것이 좋다. 한참 미달되는 점수를 받고 낙담하는 것보다 이편이 훨씬 현명하다. 한번 낙담하면 자신감까지 잃는 학생들도 있다. 자신감은 성취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대 이하 점수가 나왔다면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험을 보아야 한다. 늦어도 내년 3월에 다시 시험을 보아야 한다. SAT 시험은 독해능력 시험이다. 독해력이 기준 이상이 되어야 SAT 점수를 만족할 수준으로 얻을 수 있다. 즉 독해능력이 1330점 이상이 되어야 고득점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무조건 학원에 다닌다고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해 능력 향상 방법으로 가장 추천되는 것은 독서이다. 많은 책을 읽는 것이 SAT점수 향상을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교과적 요소, 즉 액티비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액티비티는 하루 아침에 완성이 되지 않는다. 좋은 기록을 만들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얼리 지원의 장점과 종류

대학입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표대학'을 정하는 일이다. 목표 대학은 전공, 학비 조달 방법, 성적 등을 기초로 결정한다. 이렇게 목표대학을 결정했다면 다음으로는 얼리(조기전형)로 지원할 것인지, 레귤러(정시전형)으로 지원할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

'Ivy Focus' (ivyfocus.com)에 따르면 미국의 450여 개 대학이 얼리 어드미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얼리에 지원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다. 가장 확실한 장점은 합격률이 대폭 올라간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시보다 합격률이 3배 많게는 7배까지 높아진다.

얼리로 전체 정원의 50% 가까이를 선발한다.

■ 얼리 지원의 조건

얼리 지원을 하려 한다면 다음의 2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1. 여러 대학으로부터 합격 소식과 재정 보조를 받아 비교한 뒤 선택하고 싶은가?
2. 나는 내 실력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대학에 꼭 지원해 보고 싶은가?

이 두가지 질문에 모두 yes라고 답한다면 얼리를 넣어서는 안 된다.

■ 얼리의 종류

얼리 지원에는 3가지가 있다. 얼리 디시전, 얼리 액션,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이다. 이 세 가지 옵션 모두 10월 혹은 11월에 지원을 해야 한다. 세 가지 옵션 모두 합격자 발표가 빠르다. 12월 혹은 1월에 다른 학생들보다 일찍 합격통지를 받는다. 어느 대학이 얼리 제도를 채택하고 어떤 옵션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지원 작전을 수

립할 수 있다. 학교마다 매우 다양하므로 학교 카운슬러나 전문 컨설턴트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1. 얼리 디시전

얼리 디시전 제도를 채택한 대학에 지원하려면 한 대학에만 지원을 해야 한다. 지원한 대학에서 합격하면 지원 학생은 반드시 그 대학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것을 'Binding'이라고 한다.

얼리 디시전에도 얼리 디시전 I, II가 있다. 얼리 디시전 I은 데드라인, 즉 마감일이 10월 혹은 11월이다. 얼리 디시전 II는 마감일이 정시, 레귤러와 같다. 공통점은 합격을 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리에 합격을 했다면 다른 지원은 철회를 해야 한다.

2. 얼리 액션

얼리 액션은 합격을 해도 등록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얼리 액션은 한 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 합격 통지를 받았다면 5월 1일까지 '등록하겠다'는 답변을 유보해도 된다. 물론 안 가겠다고 통보해도 된다.

3.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

얼리 액션의 변형이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대학들이 사용하는 어플라이 방식이다. 오직 한 개 대학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합격통지를 받아도 등록할 의무는 없다. 한 개 대학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얼리 디시전과 같지만 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액션과 같다. 얼리 액션에 합격을 해도 다른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 대학에 갈지 여부는 5월 1일까지 유보해도 된다.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반

IRS Special Enrollment Exam

무료 강의

유튜브에서 "장홍범 교수"를 검색하시어 전과목 족집게 무료 강의를 경험해 보세요

30년 이상의 강의 경험, 한인 세무사들의 대부분 미주공인 한인세무사협회 회장인 장홍범교수(CPA겸 EA)의 합격률 100%의 명강의

장홍범 교수 CPA, EA
현, 미주 공인세무사 협회 회장
C & C Group Inc. 공동 대표
회계학 학사
세법학 석사
회계학 박사 과정

온라인 동영상 재택 공부과정 \$700

“학력, 전공, 신분 상관없이”
누구나 2달이면 합격 100% 합격 보장

온라인 재택 공부과정을 금년 12월 이내에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 개강 예정인 오프라인 강의(\$1,400)에 무료 수강

TALK eatax

세무회계 사무실 개업에 필요한 실무연습

www.eatax.net 온라인으로 실무연습 가능

개인 세금보고서 시나리오 30개,
법인 세금보고 시나리오 10개로 직접 세금보고 업무연습

수강 신청 및 시험 상담
714-393-2238

시험 정보 및 동영상 강의
www.eatax.net
www.eatax.com

▲ 세무사 시험 안내서

▲ LA 강의 모습